

기도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기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새로운 생명의

#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 예 배 WORSHIP

September 18,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                     |   |
|---------------------|---|
|                     | 환영과 축복<br>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
| 하나님 앞으로             |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br>예배기도 / 박진성 집사<br>주님 가르치신 기도   |
| 말씀과 결단              | 성경말씀<br>마가복음 2:13-17<br><b>“하나님의 기준과 시각으로”</b><br>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br>결단의찬송 / 305장 - 나 같은 죄인 살리신<br>(통일찬송가 405장)<br>(결단의 기도) |
| 헌신과 열매<br>(봉헌 / 나눔) | 봉 헌 / 최내권 집사, 구은강 집사<br>*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br>(통일찬송가 348장)  |
| 삶과 세상으로             | * 찬 양 / “비주소서”<br>*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데살로니가후서 2:1-12

강하고 담대하자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9월 “기도의 달”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기도합니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 소금과 빛 된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PCoP 사역 협력 교회 건물 미화(페이트 작업 및 섬김의 교회 배너 설치)에 제안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기도 가정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과 직장, 자녀들과 가족들의 평안과 건강)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 - (1) 주일 오전 11시-11시 45분  
(2) 주일 오후 8시-9시 30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성령충만과 복음의 능력을 위해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9월의 사역 - 소금/빛 된 주간(18-24)

선교주일(25)

선교 주간(25-10/1)

♥ 9월 생일축하 ♥ 이정운(30)

### 기도제목

1. 여름방학을 마친 학생들의 학업과 전 인격적인 성장
2.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 건강과 평안
3.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천국을 향한 소망과 평안
4. 교회 사역의 변화와 건강한 성장
5. 중고등부 전임사역자 청빙과 Youth Ministry 성장을 위해

### 예배 섬김이

|        |             |       |             |       |
|--------|-------------|-------|-------------|-------|
| 주일예배기도 | 9/11        | 9/18  | 9/25        | 10/2  |
|        | 김훈태집사       | 박진성집사 | 구은강집사       | 구 민집사 |
| 주일헌금위원 | 9/11        | 9/18  | 9/25        | 10/2  |
|        | 구은강집사/최내권집사 |       | 유덕하집사/오정은집사 |       |
| 주일안내위원 | 9월          |       |             | 10월   |
|        | 김훈태집사       |       |             | 최내권집사 |

## 말씀노트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 마가복음 2:1-12

예수님은 “네가 다 나았으니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말씀 대신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 예수님을 큰 권능을 가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다. 우리는 밖으로 나타난 현실 뿐 아니라 이면의 실체를 보아야한다. 살면서 때로는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때로는 악한 세상과 사탄 때문에, 많은 문제를 마주한다. 도와줄 것 같은 사람,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 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자. 사람의 도움으로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원인을 해결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 치료받고, 고침 받고, 해복되기 위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도 드러내고

### 하나님의 기준과 시각으로 / 마가복음 2:13-17

알페오의 아들 세리 마태(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

---

---

바리새인들이 레위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칭한 이유는 무엇인가?

---

---

---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죄인에 대한 시각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다.

---

---

---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은 바리새인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

---

---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이 내가 정해놓은 틀에 이웃과 자신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

### 하나님의 기준과 시각으로 / 마가복음 2:13-17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세금 징수 일을 하던 레위를 만나셨다. 헬라어 이름은 마태였다. 예수님의 열두제자이며 마태복음의 저자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뻐서 레위는 세리 친구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했다.

이를 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다. “너희의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이는 바리새인이 보는 죄인을 보여준다. 우선 바리새인에게 죄인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온전히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죄는 전염이 된다고 믿었다. 그러니 죄인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거룩한 삶이 된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생각인가? 바리새인들의 생각일 뿐이다. 자신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일이 된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는 바리새인들의 시간이 예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신다.

바리새인이 병든 자와 죄인은 멀리해야 할 사람들인 반면,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병든자는 의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바리새인의 눈에 레위는 죄인이니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자신도 죄인이라고 불릴 수 있으니, 멀리 서서 죄인이라고 정죄만 해야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레위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를 찾아가 부르시고 함께 하셨던 것이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 나의 시각만이 옳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내가 정해놓은 틀에 나의 이웃을 가두고 나 자신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우리는 계속하여 성장해야 한다. 우리의 시각도 넓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를 소원하자. 하나님의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삶과 신앙

###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 수년간 비가 오지 않을 거라 선포하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을 은둔하던 엘리야가 드디어 갈멜산의 기도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에 비를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삼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 왕상 18:1**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장이 아름다운 기도도 좋고 조리 있는 기도도 좋지만, 기도는 응답 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향해 외치는 자기 독백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장 놀랍게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 요 15:7**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 요일 5:14**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응답 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